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연준 이사 “관세로 인한 인플레 단기적...을 하반기 금리 인하”

### [미국 금융]

-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 국채 하락
- JP모건 “미 증시 랠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리스크”

### [무역전쟁]

- 트럼프과 시진핑 통화 앞두고 양국 무역 갈등
- 중국, 미국이 관세 협상 위반한다며 강공 입장
- 미 철강/알루미늄 가격 폭증...트럼프의 관련 관세 50% 인상 방침에
- 미 상무장관, 법원 소송 관련 “미 관세 부과 계속될 것”

### [오일]

- 유가 상승...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등으로

### [글로벌 경제]

- 트럼프 관세로 아시안 제조업 활동 다시 침체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소매업체들, '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' 표현에 신중
- 삼성, Perplexity AI 기술 자사 휴대폰에 탑재할 듯
- 메타, AI 활용한 광고 제작 완전한 자동화 목표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WSJ: Fed's Waller Highlights a Path to 2025 Rate Cuts

연준 이사 “관세로 인한 인플레 단기적...을 하반기 금리 인하”

-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단기적일 수 있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으며, 특히 관세 완화가 이뤄질 경우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. 그는 월요일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.
- 그는 인플레가 2020년대 초처럼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정부의 부양 정책이 경제를 더 이상 극한으로 몰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.
- 그는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경제 둔화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**WSJ: Treasuries Fall as Tariff Uncertainty Clouds Outlook Before Data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 국채 하락**

-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일어나는 가운데 미 국채가 하락세를 있다.
- 장기물의 경우 즉 10년물 국채 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.44%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5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커져 1백 포인트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2021년 이래 해당 수준을 넘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.
- 그리고 달러는 2023년 이래 최저치로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WSJ 기사

### **Bloomberg: JPMorgan Strategists Warn US Stock Rally at Risk From Stagflation**

#### **JP모건 “미 증시 랠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리스크”**

- JP 모건 전략팀은 올여름에 높은 물가와 미 경제 성장의 약세 때문에 S&P 500 랠리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구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미국과 선진국들 간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향후 수개월간 증시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전략팀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 보다는 국제 주식과 이머징 시장 주식을 선호하고 있고, 중국의 기술주가 강세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[무역전쟁]

### **YahooFinance: President Trump's trade agenda is on hold as he waits on a call with Xi Jinping**

#### **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앞두고 양국 무역 갈등**

- 미중 관세를 높고 주말에 양국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향후 통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-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관세 관련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안고 있는데 바로 최근 양국의 설전은 90% 관세 유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.
- 백악관 경제위원회 책임자인 Kevin Hassett는 양국의 전화통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## Bloomberg: China Accuses US of Violating Trade Deal, Vows Firm Response

### 중국, 미국이 관세 협상 위반한다며 강공 입장

- 중국은 미국이 쌍방의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양국 관세 협상을 위한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통화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
- 중국 상무부는 오늘 월요일 트럼프가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국이 위반했다는 말에 반박했다.
-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AI 수출 통제,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디자인 판매 제한,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등 새로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Bloomberg: US Aluminum and Steel Prices Surge as Trump Doubles Tariffs

### 미 철강/알루미늄 가격 폭증...트럼프의 관련 관세 50% 인상 방침에

-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산에 대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25%에서 50%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.
- 미 중서부에 납품되는 알루미늄과 연동된 선물 가격이 54% 상승해 오늘 월요일 Comex 거래소에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.
- 이는 미국 수입업자가 알루미늄을 해외 경쟁기업들보다 50%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.

Bloomberg 기사

## CNNBusiness: Commerce secretary says 'tariffs are not going away' as Trump's trade plans face legal battles

### 미 상무장관, 법원 소송 관련 “미 관세 부과 계속될 것”

- 미 상무장관은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중단 미무역법원의 판결을 일시 번복한 가운데 “미 관세 조치를 계속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그는 “트럼프는 다양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런 권한들이 박탈되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또 다른 방안을 가질 수 있다”고 어제 일요일 폭스 뉴스에서 밝혔다.
- 한편 트럼프는 어제 일요일 오후 2시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“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다른 국가들이 반미 관세로(anti-American Tariffs) 미국을 볼모로 잡아 미국의 경제가 파괴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CNNBusiness 기사

[오늘]

## WSJ: Oil Prices Rise After Ukrainian Strikes on Russia

### 유가상승...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등으로

- 석유 생산국 카르텔인 OPEC+는 주말 동안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. 브렌트유 가격은 내려가는 대신, 주 초반 급등하며 배럴 당 65달러를 돌파했다.
-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과 미국 의원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세계 시장의 공급을 더욱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Lindsey Graham 상원의원과 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그간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수입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, 이를 통해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저해하려는 서방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.
- 한편, 유가상승의 세 번째 잠재적 이유는 OPEC+의 생산량 증가폭이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일 수 있다. OPEC+은 7월에 일일 생산량을 41만 1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.

WSJ 기사

### [글로벌 경제]

#### **WSJ: Asian Manufacturing Activity Stumbles Again Under Weight of Trump Tariffs 트럼프 관세로 아시안 제조업 활동 다시 침체**

-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주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5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공장 활동이 둔화되었다.
- 대만, 한국,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이번 달 신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며, 미국 관세가 발표된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.
- 5월 조사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일시적인 휴전을 맺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났다.
- 인도는 5월 신규 수출 주문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공급망 조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, 중국은 제조업이 약간 개선되었다.
- 한편, 지난주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시장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**WSJ: Retailers Flex Their Vocabulary to Warn of Potential Tariff-Driven Price Hikes 소매업체들, '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' 표현에 신중**

-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여파를 줄이기 위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는 표현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.
- 베스트바이, 타겟과 같은 업체들은 가격을 "조정"하고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.
-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직면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비용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, 비용 부담에 지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백악관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.

- 이번 달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회사 임원들은 가격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어놓았으나, 관세 비용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얼마나 인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해진 숫자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.
- 여러 회사 임원들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,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WSJ 기사

## **TechCrunch: Samsung may incorporate Perplexity's AI tech in its phones 삼성, Perplexity AI 기술 자사 휴대폰에 탑재할 듯**

- 삼성은 AI 검색 회사인 Perplexity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, 이 AI 회사의 기술을 자사 기기에 탑재하게 된다.
- 삼성은 AI 회사의 새로운 펀딩 라운드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인데, 현재 Perplexity 앱과 어시스턴트를 자사 기기에 사전 설치하고 기본 브라우저에 검색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.
- 두 회사는 Perplexity의 AI 기술을 활용해 삼성의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의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의논 중이며, 이러한 협력은 올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.

TechCrunch 기사

## **WSJ: Meta Aims to Fully Automate Ad Creation Using AI 메타, AI 활용한 광고 제작 완전한 자동화 목표**

- 메타는 내년 말까지 브랜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광고를 완벽하게 제작하고 타겟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메타의 광고 플랫폼은 기존 광고를 변형하고,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광고를 약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, 이제는 브랜드가 광고 컨셉을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- 메타의 AI 광고 도구를 사용하면 제품 이미지와 예산 목표를 사용하여 이미지, 비디오, 텍스트를 포함한 전체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.
- 또한, 광고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동일한 광고의 다양한 버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.
- 일부 브랜드는 AI가 생성한 광고가 인간이 만든 듯한 모양새나 느낌을 주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, 소규모 기업은 보다 쉬운 광고 제작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다.

WSJ 기사

## **[보고서]**

### **따로 움직이는 미국 달러와 국채 금리 모건스탠리 "달러 가치, 내년 중순까지 8% 추가 하락 가능성"**

미국의 관세·감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최근 미국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

1 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.16%에서 4.42% 수준으로 올라왔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